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잭슨빌]

- 미사후에 사목회의 있겠습니다.
- 사순절기간동안 수요일, 금요일 7 시 반에 십자가의길 기도가 있겠습니다.
- 사목회의 끝나고 파킹장 고압 물세척 작업이 있겠습니다.
- 동유럽 성지순례 준비 중입니다. 스케줄이 확정되는데로 공지하겠습니다.

[게인즈빌]

- 오늘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주(3/16) 미사는 St. Patrick's Day 미사로 미국성당미사 (5 시 30 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공동체 | 주일봉헌금 | 교 무 금 | 건축헌금 | 기 타 | 총 계 |
|------|-------|---------|------|-----|---------|
| 게인즈빌 | \$133 | \$200 | - | - | \$233 |
| 잭슨빌 | \$241 | \$2,000 | - | - | \$2,241 |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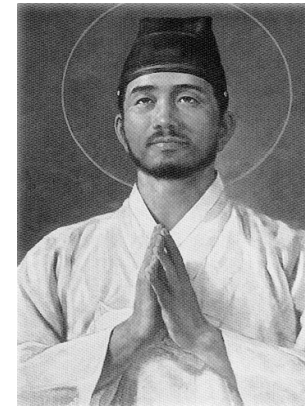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 잭슨빌 한인 성당 | |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 |
|------------|---------------------------------|-----------------|------------------------------|
| 주일 미사 |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 특전 미사 | 토요일 오후 7 시 |
| 평일 미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 평일 미사 |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
| 성령 기도 |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 성령 기도 |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
|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 매주 (목) 오전 11 시 | 레지오 | - |
| 성시간 |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 주일학교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
| 예비자 교리 | 매주 주일 미사 후 | 예비자 교리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
| 사목회의 | 첫째 주 주일미사 후 | 사목회의 |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
| 사목회장 |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 사목회장 |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성경에서 사십이라는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하늘이 열려 밤낮으로 비가 내리며 땅을 씻어 냈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고(창세 7,12,17 참조),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뒤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려고 기다린 기간도 사십 일이었습니다(창세 8,6 참조).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고(탈출 24,18 참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사십 년이었습니다(탈출 16,35; 민수 14,34 참조). 이렇게 보면 사십이라는 수는 평화의 시기,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시간을 거친 이들은 구원을 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찰대를 보내어 사십 일 동안 정찰합니다(민수 13,25 참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렘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봅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니네베에 심판을 선포하신 뒤 사십 일 뒤에도 그들이 변화가 없다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요나 3,4 참조). 이렇게 보니 사십 일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오로 사도가 제 2 독서에서 이야기하듯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의 홍수 속에 자주 빠지며 살아갑니다. 사순 첫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주님께 청합시다.(염철호 요한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사순 제 1 주일

[제 1 독서] 신명기 26,4-10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화답송] 시편 91(90),1-2.10-11.12-13.14-15 (©15 L)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10,8-13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카 4,1-13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전례 봉사자>

| 공동체 | | 해 설 | 제 1 독서 | 제 2 독서 | 봉 헌 |
|-------------|----------------|-------------|------------|------------|---------------------|
| 이 번 주 | 게인즈빌 (3/9) | 신미영 미카엘라 | 이재원 엘리사 | 하이흔 율리아 | - |
| | 잭슨빌 (3/10) | 서정원 헬레나 | 김명기 미카엘 | 이재민 토마스 |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
| 다 음 주 | 게인즈빌 (3/16) | - | - | - | - |
| | 잭슨빌 (3/17) | 윤미임 데레사 | 한상신 디나 | 최차숙 마리아 |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

<미사 성가>

| 공동체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건 |
|------|-----|-----|-----|-----|
| 게인즈빌 | 314 | 225 | 347 | 169 |
| 잭슨빌 | 118 | 342 | 158 | 123 |